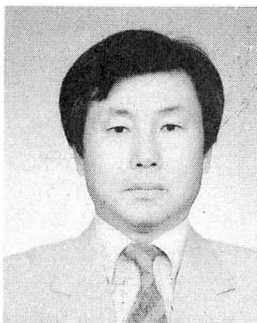


#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역할 기대

우리나라 최초로 개설된 방재시험소가 금번 개소 3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계에 대해서도 실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원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감에 따라 과학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였고 산업구조가 복잡, 다양화되었다. 이에 비례해서 인류는 자연적인 재해위험에 더하여 인간이 만들어 낸 인위적인 위험에 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인류는 여러 방면에서 투쟁하여 왔다. 재해복구시설인 보험산업과 재해예방시설인 방재산업은 바로 이와같은 재해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인간노력의 소산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근대화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입된 보험은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산업시설로서 자리를



심응권  
〈대한화재해상보험(주)이사〉

굳혀가고 있다. 이에 반해 방재산업분야는 사회 전체적으로 부족하여 아직도 낙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방재산업이 상당수준까지 이미 발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산업구조가 2천년대를 향하여 선진 고도산업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물질이 양산되고 대량생산시설 및 대량 소비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공장설비는 대규모화, 자동화, 첨단화되고 건물들은 대형화, 고층화되었으며 위험물질이나 독성·가연성가스 등의 사용이 집중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폭발 및 방사능누출 사고, 인도 보팔시의 유니온 카바이트사가 가스누출 참사와 같은 유형의 사고는 이제 우리 주변에도 내재된 위험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경제·산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러한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필요성으로 우리나라에는 건설, 화학, 유화, 가스, 전기, 전자, 통신, 기계 등 각 분야별로 시험소나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위험요인을 확인, 측정하여 위험상태를

파악, 평가하고 위험처리방법을 강구하는 위험관리기능을 갖춘 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위험관리는 개인이나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또는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잠재된 순수위험으로부터 불이익한 영향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경영주체에 따라 위험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르므로 기업과 보험자는 각각 구분해서 정의되고 있다.

기업의 위험관리는 위험제어를 통하여 손실전 목적 (Pre-Loss Objective)인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생산적 활동과 적극적인 경영체질로 유도하여 기업목적 달성에 기여하게 한다. 또한 위험의 재무처리를 통하여 손실후 목적 (Past-Loss Objective)인 기업의 생존, 작업의 계속성 유지, 수익의 안정성, 기업의 성장 및 대외신용도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에 보험자의 위험관리는 첫째, 합리적인 인수조건 및 담보 범위의 제시, 적정요율의 산정 및 제공, 인수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보유액 결정과 원활한 재보험 처리를 위한 경영측면과

둘째로, 보험판매를 위한 손실통제의 방법과 보험가입 가능한 위험을 제시하여 주는 서어비스측면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점차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부정적인 효과를 극소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관리 기능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위험을 담보하여 영위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방재시험소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란다.

첫째, 위험관리 측면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업계의 Risk Management 분야는 아직 미비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깊은 연구도 없었으며 대다수 회사가 3~4명 정도의 기술인력만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보험산업에 있어서 Risk Management 는 계약자에 대한 서어비스 측면에서나 보험의 경영수지 측면에서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방재시험소는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위험관리 전문가로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보험업무의 보완역으로서 원수사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양질의 위험관리 용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방재전문 지식과 최신 방재정보의 보급이다. 시험소는 화보험회의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축적한 방재기술과 위험관리기법의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험해 나갔으면 한다. 예를 들어 업계의 위험관리요원들과 기업의 위험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세미나 또는 토론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주요 보험가입물건에 대한 위험측정, 실습 등을 실시하여 방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 등이

다.

셋째, 국내 보유증대와 관련하여 위험측정, 인수 및 보유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손해보험산업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여야겠다. 대형 부모물건에 대한 권위있는 정확한 위험진단 및 PML 측정 등은 국내 보유의 적정화 내지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해외출수재 역조현상을 개선하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방화 및 안전관련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사회 전 부문에 확산시키고 인증업무를 확대하여야 한다. 각종 방화관련 제품에 대한 시험기준과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제조업체에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향상을 기하고 미국의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과 같이 시험대상품목을 전기, 전자제품 등에까지 확대시켜 종합방재전문기관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방재시험소가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기초화학분야, 방재기구 및 설비에 대한 시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산업의 방재분야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험, 연구하여 방재산업의 독자적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손보험계는 방재시험소의 업무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㉞)

보살피면 고마운 불 버려두면 무서운 불